

##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김 경 신<sup>†</sup>, 이 선 미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 Marriage-ideology Reflected on the View of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Kyeong-Shin Kim, Seon-Mi Lee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of marriage-ideology reflected on the view of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to estimat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related variables and to investigate relation of variables and marriage-ideology.

The samples were selected from the unmarried 164 men and 235 women living in Kwang-ju.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Unmarried men and women didn't reveal high level of marriage-ideology but men's marriage-ideology scores were higher than women. The overall tendencies were that women's achievement of vicarious status wa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personal status, marriage was the male-leading union and men's conditions of mate-selection must be superior than woman. Unmarried men and women usually did not accept equality between sex and they have strong gender-stereotype. In the view of sexuality, premarital virginity and extramarital intercourse were more rigid with woman and they took a serious view of man-centered kinship.
2. Marriage-ideolog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other's age, necessity of marriage, motive of marriage, marriage taboo according to family origin, the eldest son's parent care-giving, a notion of preferring a son.
3. Men and women's marriage-ideology was positively related to variables. Especially, women's marriage-ideology had high relation to motive of marriage and a notion of preferring a son. But women's marriage-ideology was negatively related to educational level. (*Korean J Human Ecology 1(1): 27-43, 1998*)

KEY WORDS : the view of marriage. marriage-ideology unequal, male-leading union.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B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24, Fax : 062-530-1329  
E-mail : kks@orion.chonnam.ac.kr

## 1. 서론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 남성우위의 성차별이 사회문화적 지지를 받아 옴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성중심의 성차별주의(sexism)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어 왔다. 즉,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남녀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남녀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있음을 당연시하여왔다.

성차별 사회가 형성한 성고정관념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개인을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틀 속에 고정시켜 버린다. 이렇게 사회가 형성한 성 불평등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도 제한, 왜곡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차별 언어나, 대중매체, 교육, 가족과 같은 주요한 사회화 기제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어, 남녀불평등의 사회구조가 유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 이데올로기는 두 성의 공존의 삶을 보장해야 할 결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처럼 결혼관에 나타난 남녀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결혼이데올로기라 한다. 여성은 자신에게보다는 남편에게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성적 의존을 함으로써 남편의 성공을 통한 대리만족, 대리지위획득을 추구하도록 사회화되었다. 또한, 남성은 결혼보다는 사회적인 일에, 여성은 자신의 일보다는 결혼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고, 신데렐라 complex, 성 complex, 착한 여자 complex 등 여러 성차별적 complex에 얽매이게 되었다. 특히, 여러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현실생활은 탈이데올로기적 경향이 나타나나 의식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차이를 좁히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실시된 결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혼에 대한 태도(필요성, 동기)와 배우자 선택조건(강은숙 1981; 고순자 1981; 김혜선, 신양재 1988; 안해옥 1987; 이경숙 1980; 임진 1992; 정현아 1984; 홍준숙 1987), 혼전순결(송재희 1988; 양명숙 1996; 장휘숙 1995; 홍준숙 1987), 결혼후 태도 및 생활(안해옥 1987; 임진 1992; 홍준숙 1987), 이성교제, 동성동본결혼(강호철 1984; 홍준숙 1987)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에 관련된 의식 실태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결혼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전개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결혼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남성의 학력 수준이 여성의 학력수준보다 높기를 원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고(강은숙 1981; 강호철 1984; 송재희 1988), 연령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기를 바랐으며, 배우자 가정의 경제력도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숙 1981; 권오주 1989; 송재희 1988; 홍준숙 1987). 또한,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특성을, 남성은 여성의 비경제적 특성을 중시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호철 1984; 박진숙 1984; 송재희 1988; Feingold 1990, 1992; Schoen, Wooldredge 1989).

혼전 성관념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혼전순결이나 혼외정사에 더 관대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특히 남성 자신은 혼전 성관계가 괜찮지만 배우자는 절대 안된다는 이중적 성관념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고(권오주 1989; 박진숙 1984; 송재희 1988; 양명숙 1996; 장휘숙 1994; 홍준숙 1987),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권오주 1989).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결혼이란 우세한 존재인 남성과 열세인 여성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강

하게 내포하는 것이며, 성차별적인 결혼이데올로기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이 결혼이데올로기의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결혼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결혼이데올로기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역할의 공유와 융통성이 가족과 사회의 발전에 매우 필요한만큼, 결혼이데올로기의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들의 결혼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결혼관에 나타난 남녀 불평등의식을 결혼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일은 의의가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에서 볼 수 있는 결혼이데올로기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며, 각 변인들에 따른 결혼이데올로기의 집단차를 살펴보고, 주요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성차별적 결혼이데올로기의 특성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좀 더 평등적인 남녀 관계,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결혼관을 정립하고, 관련된 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의 일반적 경향과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 2) 주요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이데올로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주요 변인과 결혼이데올로기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관 및 결혼이데올로기

결혼관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하며, 결혼관에서 볼 수 있는 남녀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결혼이데올로기라 한다.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18세기말 Destutt de Tracy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Larrain, 한상진, 심영희(공역) 1984). 기초 이데올로기론은 대체로 Marx에 바탕을 두는 입장과, Bacon에 바탕을 두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루카치 등의 역사주의, 알튀세 등의 구조주의, 만하임 등의 지식사회학, 프랑크푸르트학과, 구조주의 기호학과 등이 전자에 속하고, 후자에는 합리적 지식을 방해하는 주관적 요소를 비판함으로써 과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논하는 실증주의 과학론의 이데올로기론,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성향을 비판함으로써 이데올로기 개념을 내포한 파레토, 프로이트 등의 심리학적 이데올로기론 등이 포함되고 있다(이옥경 1985).

각 입장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나 Marx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자기 이해와 세계이해를 오도시키는 왜곡된 해석체계(한상진 1983)라 할 수 있다. Marx는 이데올로기를 허위 의식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이데올로기가 은폐와 대체기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Larrain, 한상진, 심영희(공역) 1984).

이데올로기는 현실모순이 심화될 때 나타나는데, 모순을 감추고 정당화시키는 도구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이 강제적 힘에 의하지 않고,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피지배계급의 의식에 심어진 지배이데올로기의 내면화로 달성된다(이옥경, 1985).

현재 우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현실모순의 은폐와 대체수단으로는 정절이데올로기, 가부장이데올로기, 성역할이데올로기, 성차별이데올로기 등이 있다.

결혼이데올로기란 성차별이데올로기의 하위 개념으로, 일종의 '허위의식'이며, 성차별사회의 성적 지배를 은폐시켜 남녀불평등 현실의 모순을 감추고 이로써 생긴 빈터를 남녀의 생래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메꾸는 대체기능을 수반하고 있다(권오주 1989).

여성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제한된 영역속에서 남성에게 경제적, 정서적, 성적인 종속적 삶을 살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혼의 불평등성에 좌절되기보다 오히려 많은 미혼여성에게 자신의 구원처는 결혼이며, 기혼여성도 결혼생활에서 이타적, 헌신적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여성의 길이라고 믿게 된다. 바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인 것이다(권오주 1989). 또한, 착한여자 complex, 신데렐라 complex, 성 complex, 외모 complex, 지적 complex 등도 결혼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양성 모두 결혼을 통해 부모의 가부장적 통제로부터 독립을 기대한다. 결혼은 남성에게 가족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중대한 사건이다. 여성 또한 결혼으로 부모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 결혼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여성에게 하나의 합법적인 탈출구가 되고 있다. 더구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은 여성에게 결혼의 환상을 심어주는 강한 요인이 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 통제하의 결혼생활이 일종의 독립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결혼의 현실이 가져다주는 남편의 통제와 남편에의 종속은 전통형의 여성에게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져 체념이라는 생존전략으로 처리된다. 또 현대형의 여성에게는 의사(擬似)평등관계-서로 이름을 부른다든가, 남편이 설거지를 한다든가 하는 피상적인 평등관계-속으로 묻혀버리게 된다. 결국 결혼은 남성에게는 성취, 여성에게는 의존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영자 등 1993).

인간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결혼 규범은 한국사회에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요, 인간으로서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문소정 1994). 또한, 여성은 결혼을 지위부여와 지위상승의 중요 통로로 여겨왔기 때문에, 적령기에 달하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유영주(1976)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 대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결혼은 꼭 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정현아(1984)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대다수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생활능력이 있고 불편이 없으면 안해도 괜찮다는 식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데올로기는 흔히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로 이어지기 쉬운데, 현모양처인 여성은 우선 시부모 봉양 잘하고 시댁에 관심을 가지며, 아이들 잘 키우고 공부 잘하게 만들고 집을 잘 정돈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내오며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조를 잘하고 살림을 잘 살아서 경제적 보조 역할을 훌륭히 해내도록(문소정 1994) 강요받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들 중에는 결혼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실시된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혼이데올로기의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결혼관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방면에서 결혼이데올로기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은숙(1981)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남성은 정신적 안정, 자녀출산, 성적 충족 순으로, 여성은 애정, 정신적 안정, 부모로부터의 독립, 부모의 희망 순으로 나타났다. 송재희(1988)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부부관계를 통한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물질적 욕구를 보장받으려고 결혼하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Goode(1982)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을 통한 상향이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 동기 및 목적에 있어서의 결혼이데올로기 경향을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면접조사에 의해 26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를 연구한 권오주(1989)의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란 우세한 위치에 있는 남성에게 열세인 여성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코자하는 남성 주도적 결합이라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독자적 지위추구보다는 결혼을 통한 대리성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연령차, 학력수준, 직업, 출신지역, 가정배경 및 가문, 취미, 장애성, 사랑, 건강 등의 조건들이 고려되나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한 서병숙과 정해은(1994)의 연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미혼 남녀가 고려하는 배우자선택 조건에는 성차가 존재하는데, 미혼남녀 모두 애정, 성격, 건강 같은 개인적 속성을 중시하나 이차적으로 남성은 여자의 용모를, 여성은 남자의 학벌과 생활력 같은 현실조건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강호철 1984; 박인덕 1973; 박진숙 1984; 송재희 1988; 임진 1992; 최신태 1980).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Feingold(1990, 1992)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적 매력을 더 중시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 야망성, 성격, 지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Buss(1985), Buss와 Barnes(1986), Landis와 Landis(1968), Schoen과 Wooldredge(1989), Symons(1979) 등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조건에, 남성은 여성의 비경제적 조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결혼을 통한 여성의 지위상승의 욕구를 잘 나타내는 것이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예측화를 잘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연령차에 대해서도 남성은 자신보다 3-5세정도 아래인 배우자를, 여성은 자신보다 3-5세 위인 배우자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강은숙 1981; 홍준숙 1987), 배우자 가정의 경제력도 여성은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숙 1981; 송재희 1988). 배우자의 학력수준에 대해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아야 좋다는 태도가 일반적이었다(송재희 1988).

일반적인 성관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 아직 우세하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여성의 혼전순결에 비해 어느정도 허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남성의 이중적 성관념을 나

타내고 있다. 송재희(1988)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혼전순결에 대해 남학생은 안지킬수도 있다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킬 필요가 없다가 6.8%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꼭 지켜야 한다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한다는 응답에 남성의 55.5%, 여성의 68.5%가 답하였다. 이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 여자에게는 보수적인 사고를 보이는 이중적인 성도덕 기준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공미혜 1993; 박진숙 1984; 양명숙 1996; 이정숙 1985; 장희숙 1995; King 등 1977). 홍준숙(1987)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결혼과 관계없이 서로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무방하다는 입장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결혼하기까지는 남녀 모두 순결해야 하고 결혼후의 성은 단지 생식을 위해 있는 것만 아니라 애정을 구하기 위해 있다가 75.7%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에 관해서 더 전통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는 혼외정사에 대한 이중적 성관념으로 이어져 유지되고 있다(권오주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 및 결혼이데올로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명확한 결혼이데올로기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의 의미, 배우자관, 남녀평등관, 성관념, 시가·처가 관계 등을 결혼이데올로기의 구성내용으로 선정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데올로기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관련 변인 고찰

대부분의 결혼관 및 결혼이데올로기 연구에서 관련변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교육 정도, 종교, 지역, 성차,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학년이나 전공 등인데 특히 성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은 결혼관 및 결혼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송재희(1988)의 연구에 따르면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김영옥(1983)과 Conger(1977)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여자보다 혼전 성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배우자와의 연령차에 대해서도 남성은 여자가 3-5세 아래인 배우자를, 여성은 자신보다 3-5세 위인 배우자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의 교육정도에 대해서도 여자가 더 높은 학력의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숙 1981). 김경신 등(1995)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배우자선택 조건에서 자신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처가 관계에 대해서도 성차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남성은 부모동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여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홍준숙 1987).

고정자(1983)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선택조건으로 생활력을 중시하였고, 안해옥(1987)의 연구에서는 저학년일수록 순결에 대해서 남녀 모두 꼭 지키기를 바라는 형태이며, 고학력일수록 여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학생인 경우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등 1995). 임진(1992)의 연구에 의하면, 고졸 응답자는 대졸 이상 응답자보다 배우자와의 연령차가 많기를 원하고, 배우자의 건강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시부모와의

별거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또한 중요 관련변인으로 여겨지는데, 임진(1992)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연령차에 대해 20대 초반과 중반에서는 3.15세, 3.31세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20대 후반에서는 2.44세 차로 평균 3.1세보다 두드러지게 적게 나타나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하는 연령차는 적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Conger(197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는 연령이 많은 집단이 순결에 있어서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영주(1976)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해 거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개방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부모의 연령은 여성의 배우자관에 상당히 중요한 변인으로 김경신 등(1995)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외적점수가 높은 배우자를,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내적조건의 점수가 높은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 또한 결혼관 및 결혼이데올로기의 관련 변인으로,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 사랑이 깊다면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영옥 1983; 조양지 1984; 홍준숙 1987). 또한, 사랑의 필요성은 배우자 선택의 동질적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일수록 더 동질적인 조건을 갖는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등 1995). Lee와 Stone(1980)의 연구에서는 로맨틱한 사랑을 할수록 자율적인 배우자 선택 즉, 자유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혜선과 김영희((1983)의 연구에서도 연애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결혼에 있어 사랑을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필요성 역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여성은 더 동질적인 조건을 갖는 배우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등 1995).

이상과 같이 대다수의 연구들이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결혼관 및 결혼이데올로기를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동시에, 이성교제의 동기, 결혼의 동기, 동성동본불혼 수용도, 남아선호사상 등 몇가지 결혼관련 변인을 포함하여 좀더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 1) 주요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소득, 형제순위, 가정생활수준, 부의 연령, 모의 연령, 거주상태, 가족형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의 필요성, 동기, 사랑과 결혼의 관계, 부모의 영향, 결혼의 주체, 결혼의 중요성, 동성동본불혼 수용도, 장남부양, 남아선호사상, 이성교제동기, 이성교제 경험유무 등의 기타 관련변인이 이용되었다.

2) 결혼이데올로기 분석을 위한 결혼관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관 측정 문항은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기보다 결혼에 대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측정 도구는 면접조사를 통해 결혼이데올로기를 측정한 권오주(1989)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가족학 전공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다.

하위영역은 결혼의 의미, 배우자관, 남녀평등관, 성관념, 부모 부양관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결혼관에서 볼 수 있는 남성의 우월성을 내포하는 성적 불평등성을 포함한다. 각 영역별 문항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최고 점수는 75점으로, 높은 점수는 결혼이데올로기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데올로기의 Chronbach'  $\alpha$  값은 .78로 나타났다.

<표 1> 결혼이데올로기 분석을 위한 결혼관 측정 문항

영역	개념	문항내용	비고
결혼의 의미	동기	여성이 결혼을 하는 이유중 하나는 남성에게 경제적 심리적인 의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	결혼은 남녀의 동등한 결합이다.	역점수
	의존성	결혼을 한 여성에게는 남편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중요도	결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배우자관	연령	결혼시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좋다.	
	조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성은 여성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는 것이 좋다.	
	여성성적대상화	배우자 선택시 여성의 외모는 남성에 비해 중요하다.	
남녀평등관	남녀불평등	남성과 여성은 선천적으로 지능이나 재능면에서 평등하다.	역점수
	성고정관념 I	여성은 집안일을, 남성은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	
	성고정관념 II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	
	가사와 육아	가사와 육아는 남성과 여성이 분담하는 것이 좋다.	역점수
성관념	혼전순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혼전순결이 더 중요하다.	
	혼외정사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행위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관대하다.	
부모부양관	시부모부양	여성은 친정부모보다 시댁부모를 더 잘 모셔야 한다.	
	처가부양	사위도 처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역점수



2. 조사대상

광주광역시내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5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수정된 질문지로 총 5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450명분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질문지중 응답이 불충실한 자료를 제외한 399명의 자료를 최종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는 광주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과 직장인중 미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학생은 광주 지역 3개 대학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배부하였고 직장인의 경우 미혼남녀가 주로 근무하는 직장을 임의선택해서 배부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은 24-27세가 57.9%, 여성은 23세 이하가 51%로 가장 많으며, 학력은 남녀 모두 대학교 재학 이상인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직업은 학생, 공무원, 교사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은 남성의 경우 11-20만원이 70%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결과는 남성 조사대상자 중 3/4정도가 학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자신의 가정생활 수준을 중간 정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핵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인		대상자		대상자		변인		대상자		대상자	
		남성(N=164)		여성(N=235)				남성(N=164)		여성(N=235)	
		N	%	N	%	N	%	N	%	N	%
연령	23세 이하	48	29.3	120	51.0	형제 순위	말이	55	33.5	55	33.5
	24 - 27세	95	57.9	101	43.0		중간	45	27.4	45	27.4
	28세 이상	21	12.8	14	6.0		막내	64	39.0	64	39.0
학력	고졸이하	9	5.5	50	21.3	가정 생활 수준	상	4	2.4	3	1.3
	대재, 중퇴	134	81.3	92	39.1		중상	65	39.0	123	52.3
	대졸이상	22	13.4	93	39.6		중하	88	53.6	103	43.8
직업	학 생	125	76.2	79	33.6	부의 연령 **	40대	6	4.2	28	14.8
	자영업	3	1.8	4	1.7		50대	97	68.8	127	62.6
	전문직	3	1.8	14	6.0		60대 이상	38	27.0	48	23.6
	회사원	3	1.8	9	3.8	계	141	100.0	203	100.0	
	공무원, 교사	27	16.5	92	39.1	모의 연령 **	40대	29	18.5	91	39.7
	서어비스직	0	0.0	5	2.1		50대	98	62.4	116	50.7
기 타	4	2.4	32	13.6	60대 이상		30	19.1	22	9.6	
종교	기독교	29	17.7	47	20.2	계	157	100.0	229	100.0	
	불 교	14	8.5	20	8.6	거주 상태	부모와 함께	97	59.1	165	70.3
	천주교	14	8.5	30	21.5		하숙, 기숙사	24	14.6	13	5.5
	기 타	5	3.0	4	1.7		자취	30	18.3	40	17.0
	종교없음	102	62.2	112	48.1		친척, 형제집	10	6.1	15	6.4
					기타		3	1.8	2	0.9	
소득 *	10만원 이하	33	20.1	34	14.5	가족 형태	핵가족	144	87.8	209	88.9
	11-20만원	73	44.5	55	23.4		확대가족	20	12.2	26	11.1
	21-50만원	29	17.7	65	27.6						
	51-100만원	24	14.6	73	31.1						

\* 대학생의 경우 용돈 포함, \*\* 생존한 경우에만 응답함.

3.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표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r을 이용하였고, PC/SAS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의 일반적 경향 및 성별차이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의 일반적 경향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결혼이데올로기의 일반적 경향 및 성별 차이

내 용		남 성		여 성		차 이(t)
		M	SD	M	SD	
결혼의 의미	결혼의 동기	2.96	0.90	2.69	1.00	2.80**
	결혼의 성격	1.72	0.78	1.43	0.59	3.96***
	여성의 의존성	3.06	1.05	3.06	1.04	0.24
	결혼의 중요도	2.90	0.99	2.98	0.97	0.81
	소 계	10.67	2.66	10.17	2.29	1.97*
배우자관	연령차	3.34	0.92	3.46	1.03	1.22
	조건	3.12	0.91	3.29	0.91	1.85
	여성의 성적대상화	3.27	0.91	2.88	0.90	4.22***
	소 계	9.73	2.01	9.64	2.22	0.43
남녀평등관	남녀불평등	2.56	1.00	2.23	0.93	3.45***
	성고정관념 I	3.20	1.04	2.53	0.92	6.71***
	성고정관념 II	4.01	0.92	3.56	1.02	4.45***
	가사와 육아	2.41	0.93	1.82	0.82	6.79***
	소 계	12.18	2.50	10.14	2.29	8.44***
성관념	혼전순결	3.20	1.14	2.55	1.59	5.48***
	혼외정사	3.35	0.98	3.11	1.39	1.97*
	소 계	6.54	1.85	5.67	2.02	4.40***
부모부양관	시부모부양	2.97	0.92	2.59	0.99	3.85***
	처가부양	2.41	0.83	1.88	0.72	6.61***
	소 계	5.38	1.37	4.47	1.30	6.70***
전 체		44.50	7.69	40.08	6.56	5.59***

\* p<.05, \*\* p<.01, \*\*\* p<.001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은 44.50, 여성은 40.08로 결혼이데올로기의 양상(중간점:45점)을 뚜렷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결혼이데올로기 점수는 여성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성차별적 결혼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결혼의 의미에 대한 영역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뚜렷하게 결혼이데올로기의 경향을 보이지는 않

으나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결혼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을 더 보이고 있다( $p < .05$ ). 결혼은 여성에게 있어 남편의 성공을 통한 대리지위 획득의 주요 통로가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해 결혼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결혼의 동기나 결혼의 성격에서는 남녀평등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결혼은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 심리적 의존의 수단이 되고, 남녀의 동등하지 않은 결합이라는 결혼이데올로기적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관에 관한 하위영역은 남, 여가 각각 9.73, 9.64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나타내고 있다. 즉, 배우자를 선택할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좋은 조건,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선택시 여성의 외모가 남성에 비해 더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은 3.27, 여성은 2.88을 나타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남녀평등관의 영역에서는 남성이 12.18, 여성이 10.14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p < .001$ ). 이는 남성의 성차별이데올로기를 잘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남녀불평등의 문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남녀의 선천적 불평등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집안 일을, 남성은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성고정관념 I에서는 남성은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을 여성은 근대적인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성고정관념 II에서는 남녀 모두 전통적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더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전통적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와 육아의 경우는 남녀 모두 중간점 이하를 보여 남성과 여성이 분담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남녀평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념의 영역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결혼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p < .001$ ). 남성은 혼전순결, 혼외정사에서 모두 결혼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은 혼외정사의 경우에만 결혼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엄격한 순결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부양에 대해서는 남녀 각각 5.38, 4.47로 중간점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를 보이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여성의 시부모 부양과 사위의 처가부양의무에 대해 여성은 남성보다 더 남녀평등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p < .001$ ).

## 2. 주요 관련변인에 따른 결혼이데올로기

주요 관련변인에 따른 결혼이데올로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만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데올로기는 어머니의 연령,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동기, 동성동본불혼, 장남의 부모부양, 남아선호사상 등에서 남녀 모두 유의한 집단차를 보이고 있고, 남성은 이성교제의 동기, 부모의 영향 등에서, 여성은 학력, 직업, 부의 연령, 사랑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 어머니가 40대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결혼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보이

고 있고, 성적 접촉을 위해 이성교제를 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강한 결혼이데올로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수록 결혼이데올로기 경향 또한 낮게 나타났다.

<표 4> 관련변인에 따른 결혼이데올로기

		남 성				여 성			
		N	M	F	D	N	M	F	D
학력	고졸이하	9	46.00		A	50	43.18		A
	대학교재학	34	44.60	.48	A	92	39.02	7.59***	B
	대졸이상	21	43.19		A	92	39.45		B
직업	학생	124	44.87	.25		78	38.55	-2.5*	
	직장인	39	43.28			156	40.80		
부의연령	40대	6	44.50		A	28	39.46		B
	50대	97	43.99	.48	A	127	39.21	5.23**	B
	60대이상	38	45.47		A	48	42.73		A
모의연령	40대	29	41.03		B	91	39.53		B
	50대	98	45.33	3.65*	A	116	39.66	5.51**	B
	60대이상	30	45.10		A	22	44.41		A
이성교제 동기	여가선용	19	47.26		B	25	39.28		A
	결혼배우자 구함	56	44.54		B	25	39.28		A
	성적접촉	5	56.20		A	0	0.00		
	대화상대자 구함	42	42.81	3.31**	B	86	40.55	1.73	A
	이성을 알고싶어	6	45.33		B	12	40.17		A
	느낌이 좋아서	29	43.86		B	49	38.12		A
	기타	7	40.43		B	14	40.14		A
결혼의 필요성	필요하다	117	45.70		B	121	42.03		A
	보통이다	33	42.79	6.98**	A	63	39.43	16.05***	B
	필요하지 않다	14	38.50		A	51	36.28		C
결혼의 동기	대ભ릿기위함이다	31	47.36		A	21	44.91		A
	보통이다	53	46.68	9.57***	A	52	42.33	13.44***	A
	그렇지 않다	80	41.95		B	162	38.74		B
부모님의 반대시	결혼하는것이좋다	86	42.01		B	87	38.97		B
	보통이다	59	46.63	11.57***	A	86	41.17	2.49	A
	하지않는것이좋다	19	49.16		A	62	40.13		AB
동성동본	결혼해도좋다	55	43.42		B	66	38.70		B
	보통이다	46	44.26	4.32*	AB	64	39.61	3.34*	AB
	하지않는것이좋다	63	46.49		A	105	41.23		A
장남의 부모부양	만드시모셔야한다	68	45.49		A	53	42.17		A
	보통이다	65	45.45	5.89**	A	114	40.30	6.15**	A
	그렇지 않다	31	40.36		B	68	38.09		B
남아선호	아들은있어야한다	57	47.07		A	52	43.75		A
	보통이다	60	44.82	8.96***	A	77	41.12	19.91***	B
	그렇지않다	47	40.98		B	106	37.53		C
사랑	필요하다	114	45.31		A	154	40.85		A
	보통이다	36	43.39	2.69	AB	50	40.18	7.15**	A
	필요하지않다	14	40.79		B	31	36.10		B

\* p<.05, \*\* p<.01, \*\*\* p<.001

결혼은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사랑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집단, 동성동본간에 결혼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이는 집단, 장남은 반드시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 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결혼이데올로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느정도 탈가부장적 사고를 하는 집단이 좀 더 평등적 결혼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고졸이하의 학력집단, 아버지와 어머니가 60대 이상인 집단이 그리고 결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결혼이데올로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반인보다는 학생집단이, 결혼은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동성동본불혼에 반대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결혼이데올로기를 보이고 있고, 장남의 부모부양, 남아선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는 집단이 더 낮은 결혼이데올로기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결혼하는데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결혼이데올로기를 나타내고 있다.

### 3. 주요 변인과 결혼이데올로기의 상관

주요 변인들과 결혼이데올로기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만을 표로 제시하면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주요 변인과 결혼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남성)

변 인	결혼의 의미	배우자관	남녀평등관	성관념	부양관	전 체
배우자관	.43***					
남녀평등관	.64***	.42***				
성관념	.30***	.08	.44***			
부모부양관	.58***	.16*	.59***	.32***		
결혼의 필요성	.27***	.26***	.21**	.00	.22**	.30***
결혼의 동기	.29***	.16*	.26***	.17*	.20**	.30***
부모의 영향	.30***	.25**	.31***	.16*	.19**	.35***
동성동본불혼	.16*	.24**	.25**	.08	.00	.22**
장남부모부양	.20**	.18*	.17*	.04	.11	.24**
남아선호	.26***	.32***	.27***	.05	.16*	.30***
사랑의 필요성	.17*	.23**	.10	.01	.12	.17*

\* p<.05, \*\* p<.01, \*\*\* p<.001

남성의 경우, 결혼이데올로기의 각 영역간에는 성관념과 배우자관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영역간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 $r=.30$ ), 결혼의 동기( $r=.30$ ), 부모의 영향( $r=.35$ ), 동성동본불혼( $r=.22$ ), 장남의 부모부양( $r=.24$ ), 남아선호( $r=.30$ ), 사랑의 필요성( $r=.17$ ) 등의 변인이 결혼이데올로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주요 변인과 결혼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여성)

변 인	결혼의 의미	배우자관	남녀평등관	성관념	부양관	전 체
배우자관	.57***					
남녀평등관	.38***	.34***				
성관념	.22***	.12	.10			
부모부양관	.25***	.17**	.27***	.19**		
학력	-.20**	-.07	-.12	-.08	-.10**	-.18**
직업	.17*	.11	.05	.15*	.09	.16*
부의 연령	.07	.05	.13	.15*	.25***	.16*
모의 연령	.09	.02	.11	.18**	.16*	.15*
결혼의 필요성	.32***	.26***	.14*	.26***	.16*	.30***
결혼의 동기	.30***	.17*	.18**	.18**	.24***	.41***
부모의 영향	.08	.08	.10	.04	-.11	.35***
동성동본불혼	.07	.15*	.10	.14*	.09	.21**
장남부모부양	.13*	.19**	.14*	.12	.17*	.25***
남아선호	.36***	.34**	.16*	.20**	.16*	.39***
사랑의 필요성	.16*	.18**	.01	.30***	.18**	.18**

\* p<.05, \*\* p<.01, \*\*\* p<.001

여성의 경우는 성관념과 배우자관 및 남녀평등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학력( $r=-.18$ ), 직업( $r=.16$ ), 부의 연령( $r=.16$ ), 모의 연령( $r=.15$ ), 결혼의 필요성( $r=.30$ ), 결혼의 동기( $r=.41$ ), 부모의 영향( $r=.35$ ), 동성동본불혼( $r=.21$ ), 장남의 부모부양( $r=.25$ ), 남아선호( $r=.39$ ), 사랑( $r=.18$ ) 등의 변인에서 결혼이데올로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데, 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인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데올로기는 결혼의 필요성, 동기, 부모의 영향, 남아선호 사상등과 긴밀히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부모의 연령, 학력 등이 결혼이데올로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데, 학력 변인이 결혼이데올로기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여성 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성차별적 결혼관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결혼의 동기나 남아선호 사상 등 부계중심적 사고와 여성의 결혼이데올로기와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여전히 부계문화의 틀이 여성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남녀 모두 부모의 영향 정도에 따라 결혼이데올로기 양상이 관련됨을 볼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어, 결혼이데올로기의 극복 역시 일차적으로 가정안에서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의 특성과 내용을 파악해 봄으로써, 평등적인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결혼관을 정립하여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 399명을 대상으로 결혼관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결혼이데올로기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성차별적 결혼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성불평등적 결혼관 즉, 결혼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강한 이데올로기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남성문화에는 성차별적 결혼이데올로기가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녀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하나 아직도 남성문화가 우월함을 알 수 있어, 가족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천적 대안을 좀더 강력하게 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결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들의 경우 연령이나 조건 등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배우자선택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성의 성적대상화 등의 일부 조건에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할관에 있어서도 가사분담이나 역할 고정관념 등에 있어서는 진보적이면서도 남녀의 기본적 능력, 여성다움의 고전적 가치 등에 있어서는 전통성에 동조하는 이중적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리라고 쉽게 낙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적절히 해결해주지 못할 때 여성에 대한 왜곡 성향이 더욱 강화되어 여성의 발전 속도를 저하시키고, 여성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저해하여 정신과 물질의 차이를 증폭시키는 이중적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주체자로서 생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주도적 삶에 대한 의식전환과 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미혼남녀 모두 부모의 영향 정도에 따라 결혼이데올로기 양상이 깊게 관련되고 있어, 가정에서의 가치관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이고 평등지향적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일관성있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단순한 결혼관이 아닌 결혼관을 통한 성차별적 결혼이데올로기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결혼에 대한 허구의식을 밝히고, 결혼이데올로기의 성차를 밝힘으로써 결혼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하고 남녀간 평등적인 관계를 추구해나가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고, 매우 한정된 이론적 접근이나 선행연구 등으로 결혼이데올로기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1. 강은숙(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강호철(1984).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진주지방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고순자(1981). 미혼여성의 직업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고정자(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89-106.
5. 공미혜(1993). 은폐된 성. 과장된 성 :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 제4집: 27-47.
6. 권오주(1989).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경신, 김오남, 이선미(1995). 미혼남녀의 배우자선택조건 및 관련요인 분석. *전남대학교 가정과학 연구* 제5집:103-117.
8. 김영옥(1983). 혼전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혜선, 김영희(1983).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07-125.
10. 김혜선, 신양재(1988).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8:67-111.
11. 문소정(1994). 가족이데올로기.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 4회 심포지움.
12. 박인덕(1973).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남녀 및 기·미혼별. *아세아 여성연구* 12:151-174.
13.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129-148.
14. 송재희(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서병숙, 정해은(1994). 배우자 선택과 결혼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 연구* 12:209-227.
16. 안해옥(1987). 미혼 남자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대전지역의 남,녀 대학생들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167-181.
18. 유영주(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집:127-150.
19. 이경숙(1980). 미혼근로자와 대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이영자, 김혜순, 민경자, 이정옥(1993). 성평등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서울.
21. 이옥경(1985). 조선시대 정절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데올로기 비판론의 재구성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이정숙(1985). 여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 제3집:367-383.
23. 임진(1992). 일부 미혼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장휘숙(1995). 가족심리학-가족관계의 발달-. 박영사, 서울.
25. 정현아(1984).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조양지(1984). 보건전문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최신태(1980). 계층별로 본 결혼행동에 나타난 여성역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6:227-252.
28. 한상진(1983). 생활세계의 문제의식과 사회과학. *현상과 인식* 7(1):108-128.
29.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Buss, D.M.(1985). Human Mate Selection. *American Scientist* 73:47-51.
31. Buss, D.M., Barnes, M.(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PSP* 50(3):559-570.
32. Conger, J.J.(1977). Adolescence and Youth. The Murry Printing Company.
33. Feingold, A.(1990).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PSP* 59:981-993.
34. Feingold, A.(1992).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1):125-139.
35. Goode, W.J.(1982). *The Family*. 2nd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36. King, K., Balswick, J.O., Robinson, I.O.(1977). The continuing premarital sexual revolution among college females. *JMF* 39(2):455-459.
37. Landis, J.T., Landis, M.G.(1968).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38. Larrain, J., 한상진, 심영희(공역) (1984). 현대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한울, 서울.
39. Lee, G.R., Stone, L.H.(1980). Mate-selection system and criteria: Variation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JMF* 42(2):319-326.
40. Schoen, R., Wooldredge, J.(1989). Marriage choices in North Carolina and Virginia, 1969-71 and 1979-81. *JMF* 51(2):465-481.
41. Symons, M.(1979).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